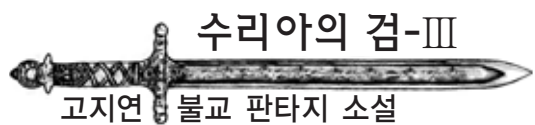


칸타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말이 진짜야?



사막의 세 머리 용 (1)

꿈속에서 무니는 마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저 멀리 거대한 화마가 어둠을 집어 삼키며 불길한 빛을 내뿜는 모습이 보였다. 짐들은 겁에 질려 울었다. 무니는 아직 완전히 타지 않은 자신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엄마를 발견했다. 이미 그녀의 호흡은 희미해져가고 있었다. 겁에 질려 탄 얼굴엔 불꽃에 탄 상처들이 가득했다. 무니는 울 수도 없었다. 그때 마야의 입술이 힘겹게 달싹었다. 무니는 엄마의 얼굴에 귀를 바짝 댔다. 마야의 목소리는 그녀의 생명과 함께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듯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꼭 알아내야 한다.” 힘겹게 내뿜은 엄마의 마지막 한 마디였다. 무니는 그제야 소리 내 영영 울기 시작했다.

어느 새, 꿈의 배경은 얼음의 성으로 바뀌었다. 꿈속의 무니는 계속 그곳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얼굴과 몸의 크기 모두, 그가 얼음의 성에서 처음 눈을 떠든 몇 백 년 전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가 간혀 있는 방도 마찬가지로였다. 똑같은 색깔의 벽, 창가에 놓여있는 탁자와 전혀 해지지 않은 베갯잇,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벽을 향한 칼기의 등도 그 언젠가와 변함없었다. 무니는 꿈속의 자신을 내려다봤다. 거기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 있었다. 분명 지금의 자신과 다른 건 하나도 없었는데,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은 농동자는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고, 붉던 입술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무니는 그런 자신의 꿈속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감아 버렸다. 그때였다. 누군가 무니를 애타게 깨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 소리에 다시 눈을 뜬 무니는 방 안을 휘 둘러봤다. 꿈속의 모든 것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희미해져갔다. 단지 자신을 부르는 소리만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야! 일어나. 일어나라!”
목소리의 주인공은 무니의 어깨를 흔들며 깨우다 지쳐 막 걸걸질을 하려던 참이었다.

“아, 시끄러워.”
막 꿈의 경계에서 현실로 넘어온 무니가 귀를 막으며 낮게 외쳤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봤다. 빛을 뒤에서 받아 검붉은 얼굴이 머리맡에서 그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무니는 힘들게 몸을 일으켰다. 흐릿했던 시야가 분명해지며 상대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다. 무니와 달리 까무잡잡한 피부에 남자답게 쪽 뺨은 코와 약간 빼죽 내민 거 같은 도톰한 입술, 난다였다. 걱정과 놀라움으로 더욱 커다래진 친구의 눈에서는 당장이라도 갈색 농동자가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았다.

“일어났구나! 진짜 다행이다.”
난다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삽화 · 김홍인

“나 도대체 얼마나 잔거야? 해독제는? 주문은?”
정신을 차린 무니가 난다를 향해 거침없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그게…….” 당장이라도 무니를 견어할 거 같은 기세는 어디로 가고 난다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올라갔다.

“해독제를 제조하려고 보니까, 중요한 광물 하나가 빠져있더라고. 저번에……. 아, 그래! 맞아, 맞아. 너 무를 다쳤을 때 썼던 파란 루비 있었잖아. 그게 없어서 넣지를 못했거든. 그때 네가 다치지만 않았더라도 그 귀한 걸 좀 아낄 수 있었는데 말이야.”

무니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난다를 쳐다봤다. 먹으면 바로 잠이 든다는 약초를 우연히 발견한 난다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던 게 오늘 아침이었다. 해가 떠있는 방향으로 보인데, 지금은 벌써 오후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산길에서 피박네, 다섯 시간을 잤다는 말이잖아.’ 무니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파 왔다.

“그럼 그 해독 주문이란 건?”
난다는 이어지는 추궁에 울상을 지어 보였다. 무니는 친구의 표정만으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난다에게 무니는 그야말로 실험 대상이었다. 죽거나 크게 다치지 않는, 말하자면 안전하다고 난다가 보장한 약초 복용은 기본이었고, 수시로 요상한 마법 주문에도 걸려주어

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마법가방이 무거워질수록, 난다의 실력 향상 속도가 느려진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해독제 조제 실력이 그랬다. 서로 떨어져 지내는 여섯 달 동안 손에 넣었다는 온갖 책들도 별반 도움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패라는 거지?”
난다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너 그 주문 책 말야. 아직 해석도 다 못한 거 아니야?”

난다가 그건 아니라는 듯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저쪽 어딘선가 “하잉-!” 하며 비웃음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다. 길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던 조랑말 칸타카가 내는 소리였다.

“하하하, 이제 칸타카가 내 대신 비웃는구나.”
난다는 무니가 자신을 약 올리기 시작할 순간임을 직감하고, 얼른 돌아섰다. 이럴 때는 단청을 피우는 게 상책이었다. 그는 일단 풀어헤쳐진 마법가방부터 정리하는 척을 했다. 이제 곧 해가 질 무렵이므로 가급적 빨리 산을 내려 가야하기도 했다.

그 동안 무니는 가방을 정리하느라 분주한 친구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문득 꿈에서 봤던 칼기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무니에게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헤어졌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

았다. 얼마처럼 자신도 기억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걸까. 무니는 걷고 있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실마리를 찾았다면, 분명 이 목걸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리라. 그때였다. 누군가 어깨를 누군가 톡하고 치는 게 느껴졌다. 돌아보니 순한 눈빛의 조랑말 칸타카였다.

“이제 정신 차렸으니 출발해야지?”
이미 마법 가방을 둘러싼 난다가 멍하게 칸타카와 눈을 맞추고 무니를 향해 말했다. 지금 보니 칸타카 역시 책 꾸러미를 등에 가득 짊어지고 출발한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다. 무니도 “그래.”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졌다.

“괜찮아?”
난다가 휘청거리는 무니를 얼른 부축하며 물었다.
“응, 너무 많이 잤나봐.”
정신을 차리기 위해 머리를 흔들던 무니는 문득 짐짓 화를 내는 것처럼 친구에게 장난을 걸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언젠까지 내가 네 실험 대상이 돼야 하는 거야?”
난다도 지지 않겠다는 듯 말했다.
“야! 그럼 네가 주문 공부도 하고, 해독제도 만들어 보지 그래!”

“뭐야! 정색시키는, 요즘 반항이 잦아졌는데.”
“내가 언제 정색했다고 그래?”

무니의 말에 난다는 진짜 정색을 하며 대꾸했다.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반항을 한다는 거야? 내 가네 동생이야?”

씩씩거리는 난다를 보며 ‘크크’ 웃던 무니는 혀를 날름 내밀어보았다. 그리고 칸타카와 함께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난다도 가방끈을 질끈 움켜쥐고 그들을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기에, 서둘러야 했다. 무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보니 우리 며칠째 계속 걷고만 있네. 마히사들처럼 나는 방법만 찾아내면 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칸타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말은 진짜야? 그렇다면……. 아, 저게 뭐지?”

무니와 칸타카가 갑자기 멈춰 섰다. 난다는 가방끈을 움켜쥐었던 손에 힘을 풀며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만으로 예상일이 아니라고 느낀 난다 역시 무니의 시선이 향해있는 곳을 쳐다봤다.

그곳에는 커다란 산 하나가 활활 타고 있는 광경이 거짓말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바로 지금 그들이 ‘수리아의 검’ 조각을 찾기 위해 향하는 곳이었다. 망연자실해 그 장면을 바라보던 난다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뭔가를 급히 꺼냈다. 얼핏 회중시계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물건은 언젠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으로 각각 금, 은, 동, 나무로 된 네 개의 더 작은 수레바퀴가 빈틈없이 들어가는 작은 수레바퀴였다. 지금은 그 중 나무로 된 작은 수레바퀴 하나가 서서히, 그러나 눈에 필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무니야!”
“응?”
역시 낮이 나가 있던 무니가 대답했다.
“저기 이거, 나무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거든. 내가 그때 이게 위기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었어? 즉음이라고 했었어?”

표정이 딱딱하게 굳은 난다가 허리춤의 수레바퀴를 그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그 외중에도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고 어느새 햇빛 연기는 그들의 시야를 가릴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좋은 의미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럼 일단 여기서 멀찍이 도망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일행은 그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걸어왔던 방향으로 되돌아 뛰어갔다. 멀리서 또 다른 산 하나가 불에 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뒤를 따라오던 불은 무니의 눈앞에도 있었다. 어머니를, 유리영감을, 그리고 난다의 부모님들을 활활 태워버린 바로 그 불이었다. 무니는 질끈 눈을 감고 더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렇게 뛰어가는 동안 불길은 풀과 나무,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을 모두를 완전히 태워버렸다. 불길의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사막처럼 다 타버린 재들만 바람에 흩날렸다.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윽고 불꽃들이 천천히 사그라지기 시작하자, 아직도 뜨거운 땅을 식히듯 서늘한 바람이 내려앉았다. 무니 일행이 한 마을에 도착한 것도 바로 이 때쯤이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츰컬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용)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